

가능하며 아무리 수행해도 성불하지 못할지"라고 했어요. 마침 유머가사 지나가다가 이 사실을 듣고는 "한마음 돌이켜 참회하고 수행하면 성불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수행자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정진을 거듭하여 훗날 아라한과를 증득했어요. 이것이 대승불교입니다. 일체유심(一切唯心)이요, 만법유심(萬法唯識)이라는 관점에서 한마음 돌이킬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간화선(화두선)도 불립문자로 교외발전이며 직지인심하여 견성성불할 것을 주장합니다. 곧 바로 마음을 가리켜 부처 이룰 것을 강조하니 호국불교와 대승불교, 간화선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통하여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리 일찍 오셨습니까? 내일 열라대왕님을 만나게 되면 하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다가 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가실수 있을 겁니다"

열라대왕을 만난 이거사가 삼목구왕이 시키는대로 하자 열라대왕이 "어서 돌아가셔서 경관을 완성하고 오십시오."

이거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해낸단 말인가?" 삼목구왕은 "아무 걱정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내려 가시거든 권선문을 만들어서 합천군수한테 도장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꿈이 괴이했으니 하도 생생한지라 이거사는 권선문을 만들어서 합천군수를 찾아갔어요. 합천군수도 열부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말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때 고려국의 공주가 병이 나서 미친듯이 소리치며 대장경 회주만 찾는 것이었습니다. 합천까지 소문이 퍼져 이거사가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거사를 보자마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공주의 강력한 권위로 사간관의 제작이 시작되었고 후일 외적의 침입을



◇ 통일조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불자들을 비롯 우리 국민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공(空)사상' '무아(無我)사상' 이라며 불교정신만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고봉스님.

에서는 치료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몸이 극도로 쇠약할때는 수혈을 해야합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수혈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듯이 우리 민족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데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면 불교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피속에는 불교의 정신과 사상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불교가 흥할 때는 나라가 융성했고 불교가 쇠퇴할 때는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모든지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비움수 있는 종교, 자리아타(自利利他)할 수 있는 수행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불아타 조야타"라. 부처도 버리고 조사도 버리며 살불살조(殺佛殺祖)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지배하고 나를 따르도록 해서는 조화와 평화와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마음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욕심낸 것보다 더 잘됩니다. 욕심내면 잘될 것 같지만 안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열심히 하다보면 묘하게 이뤄집니다. 하다가 말다 하면 안되고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을 살피고 가진대로 분수껏 하면 됩니다. 불교적 처세법으로는 사십

지목스님의 스님이야기

■ 법정스님 ④

茶禪一味(茶禪一味 頭頭 落款 광) 빛과 향기와 맛을 온전히 합치어다. 지목 아사리를 위해 불일암 佛日(佛日 落款 광)

어느 해 단오 무렵, 합죽선 부체에 스님이 먹을 글씨로 이런 말씀을 써서 주신 적이 있다.

스님의 낙관은 석정 스님, 무용 거사, 수안 스님, 여기에 내가 관 것까지 합쳐서 백여 과(顆)가 된다. 나는 초기에 20여 과 정도를 파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에 찍힌 '불일'도 그 중의 하나이다. '불일' 낙관의 글씨 도안은 스님이 하시고 나는 칼질만을 하였다. 스님의 미적 감각이랄까 보시는 눈은 가히 전문가의 수준을 넘는다. 새 낙관을 보여드리면,

"이건 약간 힘이 빠져어. 다시 해요."

"중군. 균형이 잡혔어. 약간 옆으로 빠져 나와서 멋이 있지 않아요?"

"날일(日) 자는 그냥 해를 그려봐. 원 안에 점만 찍고..."

나는 스님의 칭찬에 신이 나서 일에 피곤을 모르고 하였다.

이야기꾼으로 키워주신 엄하고도 냉정하신 스님

불일암에서 모시고 지낼 때에 스님은 목공 일을 맡으시고 나는 석공 일을 맡았다. 일이 생기면 자기 취미에 따라 일을 하였다. 스님은 세속에서 직업을 택하였다면, '목수'나 '청소부'를 택하였을 것이라고 술회하신 바가 있다.

"내가 만약 시끄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됐다면, 청소차를 몰거나 가구를 만드는 목수 일을 하게 됐을 것이다."

목공 도구가 한 살림을 해도 좋을 만큼 많다.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다. 웬만한 목수 연장을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림·문병성

살아리 살아리 랸다 청산에 살아리 랸다 멀어랑 두레랑 먹고 청산에 살아리 랸다

지금도 이 청산발곡이 새겨진 목각 현판은 불일암 부엌 입구쪽에 걸려있다. 물론 스님의 초기 솜씨이다. 서울 봉은사 시절에는 '다래헌(茶來軒)', 조계산 불일암 시절 이후에는 '수류화개실(水流花開室)', '수류산방(水流山房)'으로 거처를 나타내시는데, 낙관도 여기 이름에 따라 바뀐다.

"지목 수좌한테는 세 가지가 안 되겠어. 낙관도 못 따라가고 수재지도 못 따라가고 이야기에도 못 따라가."

이 이야기, 차암, 지목 수좌가 오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손을 들었어. 장담 일곱시 이야기.

있는 시간에 아침으로는 예불 후에 절을 올린다. 여러 스승에게 차례차례 올린다. 물론 스님계도 큰 절을 올린다. 외국생활이 6년, 그동안 좌절하지 않고 매일 국내에서처럼 지낼 수 있는 힘은 절에서 지켜봐 주신 스승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미국 LA 고려사 시절, 1985년, 86년 그 무렵이었다. 운전 면허증을 필기시험 100점 만점으로 땀을 때스며 스님이 "어떻게 땀?" 하시기에 문제집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몇 말씀 드렸을 때에 스님도 100점 만점 합격이었다. 그 뒤로 차 뒷자리에 앉으시면,

"어, 속도 줄여. 좀 천천히."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질 않으신다. 엄한 운전 교사였다. 정면 주차를 잘못해도 "차를 바로 세워. 비틀어졌지 않아요?" 하신다. 들을 때에는 별로 좋지 않지만 뒷날 회고해 볼 때에는 가슴 울림을 준 때였어. 갑자기 "회초리 매를 좀 때려주지 않아요?" 하는 간절한 정이 솟곤 한다. 스님의 손때가 묻은 <신채호 전집> 상 하 권을 건네주시면서,

"외국에 나가 있으면, 모국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아요."

하시는데 이럴 때에는 엄하고 냉정한 스님은 어디 가고 자애로우신 스승의 모습으로 붉게 각인(刻印)되어 남는다.

"한 마음 돌이키면 치우침 없어 불교 매개로 민족 동질성 회복"

만대장경관 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간관에 보면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경위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해인사 아래 합천에 이거사(李居仁)이라는 거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길을 가다가 눈이 셋 달린 개 한 마리를 만났는데 집까지 따라와서는 나갈려고 하질 않아요. 3년을 키우면서 정이 들었는데 주인이 출타할 때는 10리까지 따라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개가 갑자기 죽어버렸는데 이거사는 마치 가족이 죽은 것처럼 관에 넣어 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년후에 이거사도 죽게 되었습니다. 열라국의 어느 궁궐에 도달하니 가운데에 우두머리인듯한 자가 앉아 있는데 눈이 3개였어요. 그 우두머리가 버선발로 내려오면서 "주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원래 열라국 사람으로 죄를 지어 3년동안 개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주인님을 만나 잘 대접받으며 살았습니다."고 말해요. 이 우두머리가 바로 3목구왕(三目狗王)입니다.

물리칠 팔만대장경관을 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부처님의 법륜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굳센 발원과 믿음이 호국불교의 발원인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불법과 부처님의 위신력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으면 경관으로 외적을 물리칠 생각을 하셨습니까? 불법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가피에 대한 믿음이 이처럼 철두철미해야 불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의 결정체입니다.

-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소비 풍조는 늘고 있고 사회가 강은 점점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사람이 몸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들듯이 우리 민족은 현재 병들어 있는 상태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



◇ 고봉스님은 수행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매일 규칙적으로 수련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다.

신비람 100인 부채 그림전 (출품 요강)

▶ 취지
전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교도소, 구치소, 양노원, 병원 사회복지시설에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개최

※ 부채는 도를 전수하는 전법의 도구로 불가에서는 널리 이용되었음.

▶ 전시기간: 2000. 7. 21 ~ 8. 20 (한달간)
▶ 전시장소: 대림당화랑 (대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 주 최: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 작품소재: 선화, 달마, 반야심경, 사경, 불화등
▶ 접수기간: 2000. 6. 19 ~ 6. 24 까지
▶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F) 우 : 701-250 현대불교신문 대구지사
▶ 전화상담: (053)983-9222 FAX (053)983-9223 H.P 011)813-3679

※ 스님·불자·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이리링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숙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숙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숙(蔘蔘蔘)은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 밑에서도 피란알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썩을 말합니다. 구상북지인 일출스님은 이리링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숙(蔘蔘蔘)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지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북분재산말기등 8종의 약초를 기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물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엔 물과 마음으로 다짐계승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숙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중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임과 불사령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향버섯, 기간지신식·용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떡, 꿀, 꿀다공중·꿀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오.

순수익이름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복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임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 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충주 문 치 080-988-4774 호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

왕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왕토흙집에 희소식!!」

왕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왕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 봉송 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